**우도 신궁: 우도산 핫초자카**

우도산 핫초자카(‘우도 신궁으로 이어지는 8정 언덕’, 정(丁)은 길이의 단위로 약 109m)는 우도 신궁으로 이어지는 가장 오래된 참배길입니다. 815개의 돌계단은 우도항으로 연결되며 적어도 에도 시대(1603-1867)부터 사용되어왔습니다. 돌계단의 중앙부는 수 세기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밟으면서 닳아 없어졌는데, 주변과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높이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돌계단은 돌을 머리에 이고 해안에서 옮겨온 여승들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